



총기 폭력 금지 명령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

자해 및 타인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는 도구

총기 폭력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예방 가능한 공중 보건 위기입니다.

주지사 **Gavin Newsom**의 리더십 하에,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시행했습니다. 여기에는 총기 폭력 금지 법안이 포함되며, 이는 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위기에 처한 사람의 총기 및 탄약 소지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.

총기 폭력 금지 명령은 현지 법원에서 취한 민사 조치입니다. 이 임시 명령은 위기에 처한 개인이 도움과 보살핌을 안전하게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, 총기 폭력이나 총기 자살을 잠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 현행법상 처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
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총기 폭력과 총기 자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귀하나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고 자해나 타인에 대한 상해 위험이 임박한 경우, 911에 전화하십시오.

총기 폭력 금지 명령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

자해 및 타인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는 도구



캘리포니아는 총기 안전에 있어 국가를 선도합니다

- 2021년, 캘리포니아는 **Giffords 법 센터**의 연구 결과, 총기 안전에서 미국 최고의 주로 선정되었습니다.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망률은 국가 평균보다 37% 낮습니다.
-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른 주의 주민에 비해 **총기 난사로 사망할 확률이** 25% 낮습니다.



총기 폭력 금지 명령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

- 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,007건의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**내렸습니다**.
- UC Davis 연구원에 따르면, 시행 후 첫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**이 명령은 58건의 총기 난사 위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**.



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

주지사 Newsom은 총기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, 2023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

이러한 “적격 신청인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
- 혈연, 결혼 또는 입양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 또는 연인.
- 현재 동거인/룸메이트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의 동거인/룸메이트.
- 위기 상황의 사람과 최소 1년간 정기적으로 교류한 동료(고용주의 승인 필요).
- 위기 상황의 사람이 지난 6개월간 다녔던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의 교사나 교직원(학교 관리자나 지도 교수의 승인 필요).
- 캘리포니아 보안관을 포함한 법 집행관.
- 위기 상황의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녀를 두고 있는 개인.